

2020년 11월 20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연준위원 발언과 추가 부양책 협상 기대로 강세

미국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 지난 주 대비 26%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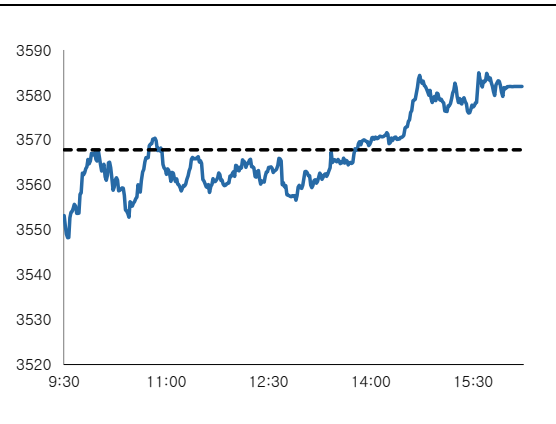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부양책에 대한 기대심리

미 증시는 코로나 확산과 부진한 고용지표 여파로 하락 출발. 그러나 언택트 환경에 기반한 기업들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나스닥이 상승 전환에 성공. 여기에 장 후반 카플란 달라스 연은 총재가 연준의 채권 매입 만기 확장 언급과 공화당과 민주당의 추가 부양책 협상 재개 동의 소식이 전해진 이후 다우와 S&P500 등도 상승 전환 성공(다우 +0.15%, 나스닥 +0.87%, S&P500 +0.36%, 러셀 2000 +0.84%)

미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7 일 평균 하루 16 만 1,165 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26% 증가. 하루 사망자 추이도 2 천여명에 근접하며 전체로는 25 만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 피해가 확산. 보건 당국자들은 할로윈 영향에 주목하고 추수감사절로 더욱 급증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 더 나아가 코로나 테스트에 대한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테스트 키트 등 소모품 부족 현상이 나오고 있어 검사 받지 못한 확진자로 인한 확산 가능성도 부각. 이런 가운데 코로나 백신은 12 월에 일부 접종이 시작될 수 있으나 배포는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의료 종사자들이 우선 접종 대상자라는 점을 감안 일반인에게는 내년으로 미뤄질 것이라는 점이 부각. 이 결과 언택트 관련 종목이 강세

한편,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증가하자 미국 일부 주와 도시에서는 봉쇄를 강화. 전일 학교 봉쇄를 발표한 뉴욕시가 이번에는 1,2 주 안에 식당 등 실내 영업 중단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발표했고, 코로나 확산이 크게 나오자 공화당 일부 주지사들은 경제 봉쇄를 강화 할 수 있다고 언급. 그러다 보니 고용 불안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가 71.1 만건에서 74.2 만건으로 증가. 코로나 피해가 고용 시장으로 전이 되고 있음을 보여줌. 장 마감 앞두고 강세폭이 확대된 요인은 연준에 대한 기대 심리. 지난 월요일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에 이어 화요일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 그리고 오늘은 카플란 달라스 연은 총재가 “연준은 채권 매입과 만기 확대할 수 있다” 라며 연준의 추가 부양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자 강세를 보임. 더 나아가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추가 부양책 협상 재개에 동의 했다고 발표된 점도 긍정적인 영향

S&P500 일종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547.42	+0.07	홍콩항셱	26,356.97	-0.71
KOSDAQ	859.94	+0.96	영국	6,334.35	-0.80
DOW	29,483.23	+0.15	독일	13,086.16	-0.88
NASDAQ	11,904.71	+0.87	프랑스	5,474.66	-0.67
S&P 500	3,581.87	+0.39	스페인	7,930.20	-0.64
상하이종합	3,363.09	+0.47	그리스	699.20	-1.27
일본	25,634.34	-0.36	이탈리아	21,536.24	-0.4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기술주 강세

코로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줌 비디오(-0.18%)가 강세를 보였기도 했으나 장 마감 앞두고 매물 출회되며 하락 마감했다. 반면, 스트리밍 기기 회사인 로쿠(+10.21%)와 넷플릭스(+0.60%) 등이 상승했다. 더불어 세일즈포스(+2.91%), 어도비(+1.51%) 등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강세를 보였다. 한편, 아마존(+0.37%)과 이베이(+2.58%) 등 온라인 쇼핑 관련 종목들과 로이어스(+1.95%), 홈디포(+0.41%) 등 주택 개량 업종등이 강세를 보였다. 더불어 월마트(+2.03%), 타겟(+2.71%) 등도 상승했다. L브랜드(+17.67%)는 예상을 크게 상회한 실적을 발표하자 급등 했다.

테슬라(+2.60%)는 전일 모건스탠리의 투자이견, 목표주가 상향 조정 소식이 이어지며 강세를 이어갔다. 중국의 인터넷 콘텐츠 업체인 비리비리(+22.17%)는 실적 호전 속 급등했다. NVIDIA(+0.09%)는 양호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센터향 매출 부진 가능성이 제기되자 하락하기도 했으나 언택트 환경 강화 기대 속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전환했다. 반면, 월 그린 부츠(-0.99%)는 아마존의 온라인 약국 진출 소식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2.42%	대형 가치주 ETF(IVE)	+0.15%
에너지섹터 ETF(OIH)	+2.05%	중형 가치주 ETF(IWS)	+0.54%
소매업체 ETF(XRT)	+2.29%	소형 가치주 ETF(IWN)	+0.52%
금융섹터 ETF(XLF)	+0.33%	대형 성장주 ETF(VUG)	+0.78%
기술섹터 ETF(XLK)	+0.81%	중형 성장주 ETF(IWP)	+1.51%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1.57%	소형 성장주 ETF(IWO)	+0.97%
인터넷업체 ETF(FDN)	+1.41%	배당주 ETF(DVY)	+0.01%
리츠업체 ETF(XLRE)	+0.16%	신흥국 고배당 ETF(DEM)	-0.21%
주택건설업체 ETF(XHB)	+0.74%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20%
바이오섹터 ETF(IBB)	+0.12%	미국 국채 ETF(IEF)	+0.11%
헬스케어 ETF(XLV)	-0.07%	하이일드 ETF(JNK)	+0.36%
곡물 ETF(DBA)	-0.39%	물가연동채 ETF(TIP)	+0.10%
반도체 ETF(SMH)	+1.31%	Long/short ETF(BTAL)	0.0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268.65	+1.53%	+9.56%	+16.18%
소재	438.42	+0.43%	+2.86%	+6.12%
산업재	737.69	+0.24%	+4.16%	+8.01%
경기소비재	1,249.68	+0.46%	+1.72%	+0.87%
필수소비재	687.24	+0.28%	+0.55%	+2.49%
헬스케어	1,268.74	-0.14%	-1.54%	+1.41%
금융	454.78	+0.29%	+3.04%	+8.80%
IT	2,132.07	+0.84%	+0.99%	+2.21%
커뮤니케이션	212.39	+0.41%	+0.92%	+4.92%
유틸리티	321.53	-1.03%	-3.08%	-2.08%
부동산	230.02	+0.12%	+1.32%	+4.9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개별 종목 장세 지속

MSCI 한국 지수 ETF 는 0.32% 하락한 반면, MSCI 신흥 지수 ETF 는 0.16% 상승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14.2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한국 증시는 미국 경제 봉쇄 여파로 일부 매물이 출회 되기도 했으나 외국인인 2 차전지 업종 등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전환에 성공 했다. 오늘 미 증시도 코로나 급증과 일부 도시의 경제 봉쇄 강화 등으로 고용지표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자 하락 출발하였으나, 언택트 관련 종목군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는 양상을 보였다. 대체로 개별 종목들의 변화에 따라 등락을 보이는 종목 장세가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어 오늘 한국 증시도 이러한 경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보우만 연준 이사가 모기지 자금 조달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미국인 37%가 충분한 식량을 살 여유가 없다는 설문 조사가 발표되는 등 미국의 경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이는 코로나로 인한 고용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재정 부양책이 의회의 마찰로 연기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결국 주식시장이 강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실물 경제는 최악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 연준위원들의 발언과 의회의 추가 부양책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연준 기대 속 외국인의 행보에 따라 변화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고용지표 둔화 Vs. 주택지표 개선

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지난주(71.1 만건)나 예상(71 만건) 보다 증가한 74.2 만 건을 기록했다. 4 주 평균은 지난주(75 만 5,750 건) 보다 감소한 74.2 만건을 기록했다.

11 월 필라델피아 연은 지수는 전월(32.3) 보다 둔화된 26.3 으로 발표되었으나 예상(24.5)은 상회했다. 세부항목을 보면 신규수주(42.6→37.9)는 부진했으나 고용지수(12.7→27.2)는 개선되었다

10 월 기존주택판매는 전월(657 만건)이나 예상(647 만건)을 상회한 685 만건을 기록해 전월 대비 4.3% 상승했으며, 전년 대비로는 26.6%나 급증했다.

11 월 캔자스시티 연은 지수는 전월(13) 보다 둔화된 11 로 발표되었다. 생산지수가 23 에서 20 으로, 기대지수도 21 에서 20 으로 낮아졌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관망 속 안전자산 소폭 강화

국제유가는 코로나 급증에 따른 수요 둔화 가능성이 높아지자 하락했다. 특히 일부 주 정부나 도시에서 경제 봉쇄가 속속 발표된 점도 이러한 추세를 이어가게 만들었다. 다만, 연준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와 OPEC+ 장관급 회담에 대한 기대로 낙폭은 제한 되었다.

달러화는 코로나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타 환율에 대해 소폭 강세를 보였다. 그러나 방향성 보다는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보험권 등락에 그쳤다. 역외 위안화 환율은 달러 대비 0.2% 약세를 보였다. 그러나 브라질 헤알화 신용등급 강등 우려에도 불구하고 달러 대비 1% 가까이 강세를 보였고 터키 리라화도 금리인상(10.25%→15.0%) 영향으로 달러 대비 2% 가까이 강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고용지표 둔화로 하락 출발 했다. 여기에 정치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연준이 12 월 FOMC 에서 정책 변화 가능성이 부각된 점도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한편, 카플란 달러스 연은 총재가 연준은 채권 매입과 만기의 확장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점도 하락 요인이었다.

금은 달러 강세 영향으로 0.7% 하락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강세 및 코로나 확산 여파로 혼조 양상을 보였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23% 상승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41.74	-0.19	+1.51	Dollar Index	92.257	-0.06	-0.76
브렌트유	44.20	-0.32	+1.54	EUR/USD	1.1879	+0.22	+0.62
금	1,861.50	-0.66	-0.63	USD/JPY	103.77	-0.05	-1.29
은	24.164	-1.60	-1.15	GBP/USD	1.3270	-0.02	+1.16
알루미늄	1,992.50	-0.28	+3.24	USD/CHF	0.9103	-0.13	-0.48
전기동	7,093.00	+0.06	+2.29	AUD/USD	0.7294	-0.15	+0.86
아연	2,759.00	+0.44	+5.06	USD/CAD	1.3056	-0.19	-0.65
옥수수	427.25	-0.75	+2.15	USD/BRL	5.3091	-1.01	-2.74
밀	598.75	-1.28	+0.25	USD/CNH	6.5723	+0.16	-0.68
대두	1,177.50	+0.15	+2.79	USD/KRW	1115.60	+1.07	+0.07
커피	123.20	+0.28	+9.07	USD/KRW NDF1M	1114.25	+0.64	-0.1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0.844	-2.62	-3.76	스페인	0.068	-1.10	-6.20
한국	1.617	+1.30	-2.90	포르투갈	0.032	-1.40	-6.90
일본	0.018	0.00	-1.20	그리스	0.685	+2.60	-11.40
독일	-0.571	-1.70	-3.50	이탈리아	0.640	-1.40	-4.3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